

전국 공안기관

음란행위·도박 전문 단속 정돈

전국적으로 관련 형사사건
6만여건 수사 처리

최근 공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안기관은 대중의 반향이 강렬한 음란행위와 도박 관련 치안문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현장조사, 전문 단속과 중점정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사회치안 환경을 효과적으로 정화했다. 지난해 공안기관은 음란행위와 도박 관련 형사사건 6만여건, 치안사건 50여만건을 수사 처리했다.

공안기관은 인터넷 성매매, 인터넷 도박, 지하 '6합복권' 등 음란행위와 도박 관련 치안 상황에 대하여 연구판단과 분석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음란행위 도박 원천 처리' 계열 전문사건 단속행동을 전개했다. 음란행위와 도박 관련 중점사건 500여건을 공시 감독하고 일련의 음란행위 도박 집단을 효과적으로 타격했다.

겨울과 봄철 농촌 도박 위법범죄의 특징에 비추어 공안부는 전국 범위에서 '청풍 2024' 전문행동을 깊이 있게 전개하여 농촌 도박 위법범죄를 효과적으로 타격했는데 농촌 도박류 형사사건 1만여건, 치안사건 10만여건을 수사했다.

여름철에 축구도박 등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데 비추어 여름철 치안 정돈행동을 깊이있게 추진하는 것을 통해 중대한 국제축구경기를 리용한 축구도박 위법범죄를 집중적으로 타격, 축구도박 형사사건 800여건을 수사하고 축구도박조직 500여개를 제거했다.

이와 동시에 전국 공안기관은 타격과 예방을 병행하여 음란행위와 도박 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돈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업종 분야의 관리 허점 문제를 깊이있게 분석하고 기존의 사업기제에의탁하여 업종 주관부문과 함께 음란행위와 도박 원천 관리를 추진했다. /인민넷

철도경찰

예리한 통찰력으로 아동유괴범 잡아



“아이의 호구부(가족관계증명서)와 출생증명서가 있나요?” 경찰이 물었다.

“없어요.” 여성이 대답했다.

“아직 호적에 올리지 않았나요?” 경찰이 다시 물었다.

“네.” 여성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이의 출생증명서는요?” 경찰이 계속 물었다.

“가방 안에 있는데 꺼낼 수 없어요.” 여성은 당황한 듯했다.

“어느 가방인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경찰의 추궁이 이어졌다.

평범해보이는 대화에서 해당 여성은 경찰의 의심을 받았다.

일전, 강소성 남경 철도경찰은 예리한 통찰력으로 아동유괴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 태어난 지 31일 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구출했다. 현재 2명의 범죄용의자는 이미 법에 따라 형사강제조치를 받았다.

당일, 남경남역에서 귀양북역으로 향하는 G1481호 열차에서 남경철도공안처 경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중년 여성이 동행한 가족이 없이 혼자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대화를 나누어보니 여성의 대답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하자 이를 수상쩍게 여긴 경찰이 여성을 련결통로로 데려가 추가심문을 했다.

여성은 처음에는 “사촌동생이 아이를 부탁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어지는 경찰의 추궁에 ‘사촌동생’의 이름조차 말하지 못했다.

경찰이 그의 위챗 채팅 기록을 조사해보니 해당 여성과 이른바 ‘사촌동생’은 작년 10월 28일에야 친구를 추가했고 올해 2월 4일에 뜻밖에도 2만원의 ‘수고비’를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어 진행된 심문에서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다. 해당 여성 진모는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자 아이를 사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2024년 4월, 진모는 강소성에서 일하는 고향 사람 조모를 찾았다. 두 사람은 위챗과 전화로 여러차례 협의한 끝에 조모 부부가 5만원에 아이를 진모에게 팔기로 합의했다. 올해 들어 진모는 조모에게 총 2만 2,970원을 송금했다.

1월 13일, 아이가 상주시보건원에서 태어나자 진모는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상주시로 향했고 귀향 열차에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나포되었다.

“아이는 상품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생명을 거래하고 있어요!”

경찰의 엄중한 질책에 진모는 련결통로에 털썩 주저앉았다.

열차가 회화(懷化) 남역에 정차하자 진모는 경찰에 의해 회화남역파출소로 이송되었다. 이후 경찰은 아이를 회화시보건원으로 데려가 추가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결과 아이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아이는 경찰에 의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갔고 범죄용의자 진모와 조모에게는 회화 철도경찰측에 의해 형사강제조치가 취해졌다. 사건은 현재 추가 수사중에 있다. /신화사

이런 황금 관련 사기극 각별히 경계해야



● 국외에서 황금 구매?… 결국 물거품으로

왕씨는 국외에서 황금을 사는 것이 국내보다 훨씬 싼데 그램당 가격 차이가 100 원에 달한다고 고씨에게 알려주었다. 그는 이 투자 주기는 대략 두달이며 적어도 10%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믿은 고씨는 왕씨에게 60만원을 건네주었다.

얼마후 왕씨는 해당 국가 세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휴대한 황금이 제한량을 초과했고 벌금을 내지 않아 황금이 압수되었으며 세관에서 어떤 증명서도 발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고씨는 약속한 수익은 물론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고 왕씨와도 연락이 끊겼다.

이에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된 고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결국 왕

씨를 체포했다. 현재 검찰은 사기죄로 왕씨를 기소했다.

● 황금 위탁? 결국 경영부진으로 폐점

하녀사는 황금에 투자할 계획으로 금은방을 찾았다. 점원은 그녀에게 황금을 산 뒤 자기들 가게에 맡기면 1년에 얼마간 리자를 받을 수 있다며 ‘황금 위탁’ 서비스를 추천했다. 만약 하녀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위탁관리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황금을 되찾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소개를 들은 하녀사는 100그램의 금괴를 구입하고 금은방과 ‘판매증서’, ‘위탁관리증명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나중에 그녀가 다시 금은방을 찾았을 때 금은방은 이미 경영부진으로 문을 닫은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한국서 사망한 부친의 5,000만원 유산, 법원 판결로 되찾다

—법무법인 재유의 도움으로 은행 저축예금 반환에 성공

한국 체류 중국인 ‘1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한국에 체류하던 중국인이 정상 혹은 비정상적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 체류하던 중국인 가족이 갑작스레 사망한 후 중국에 살고 있는 유가족은 어떻게 해야만 그가 생전에 남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만약 유산이 그가 생전에 한국에 있는 은행에 예금 형식으로 남긴 것이라면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 은행측이 예금 지불을 거절한다면 유가족은 또 어떤 조치를 대야만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이번 기에는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이 한국에 체류하던 중 사망한 부친의 유산인 은행 예금을 법률전문가의 법적 소송을 거쳐 한국 은행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돌려받은 사례를 공유한다.

2024년 7월, 연변 룡정시에 거주하는 A씨는 부친의 유산을 되찾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의 부친

은 한국에서 체류중 2022년 1월 사망했으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아들 A씨와 딸 B씨 등 2명이 있었다. 이후 딸 B씨가 2022년 4월 상속을 포기하면서 아들 A씨가 부친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부친이 생전에 예치한 예금에서 발생했다. A씨의 부친은 생전에 한국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한국 경서 농업협동조합은행에 적립·거치식 통장을 개설해 5,000만원(한화, 이하 동일)을 예치했으며 해당 예금은 2021년 6월 29일 만기되어 원금과 리자를 포함한 총 5,070만원이 지급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가 상속인으로서 예금 반환을 요구하자 한국 경서 농업협동조합은행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리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촉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예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측은 “부친의 정당한 단독상속인으로서 예금 반환을 받

을 법적 권리가 있으며 피고 경서 농업협동조합은행은 상속인에게 예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소송을 통해 예금 5,000만원과 이에 대한 법정 리자 7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해 7월 중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경서 농업협동조합은행에서 A씨에게 저축예금 5,000만원과 이에 대한 법정 리자 70만원, 총 5,07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판결 결과에 대하여 A씨와 은행측은 서로 상소를 하지 않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 판결로 인해 A씨는 부친이 생전에 한국에 남긴 유산을 정정당당하게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은행이 제기했던 불합리한 지급 거부 문제도 법적으로 해결되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예금 반환이 아니라 해외 거주 상속인이 한국에서 직접 법률 절차를 진행하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A씨는 중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한국에서 직접 소

여 하녀사는 법적 수단을 통해 그녀의 투자금을 반환할 것을 금은방에 요구했다.

● 황금을 사고팔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황금에 투자하는 방식은 황금을 구매하는 것 외에도 황금 장신구, 펀드, 금괴 및 금광주식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각 투자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으며 선택할 때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구매 경로의 정규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상해황금거래소도 공고를 발표해 투자자들에게 위험 방지에 주의를 돌리고 투자 비례를 통제하며 합리적인 투자를 할 것을 권장했다.

● 황금 구매 시 믿을 만한 경로 선택해야

첫째, 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은행마다 황금 구매 정책이 다르기에 은행 방문전 해당 은행의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고 해당 자료를 준비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둘째, 정규적인 금은방을 선택할 수 있다. 황금을 구매할 때는 먼저 해당 구체적인 규칙을 명확히 파악하고 가격대를 확인한 후 거래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일부 비정규적인 금은방들은 늘 높은 가격으로 고객을 유혹하기에 황금 검사와 무게 측정 등 면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CCTV 넷



/유경봉기자
연계전화:
13604447151



연변, 4명 젊은이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되어 징역형

최근, 룡정시인민법원은 4명의 범죄자가 각종 수단을 통해 불법 자금의 진정한 출처를 은폐함으로써 인해 진정한 범죄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도록 도운 사건에 대해 형량을 선고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피고인 림모갑(甲)과 림모을(乙), 강모는 2023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장춘시, 송원시, 할빈시, 룡정시, 이도백하진 등지에서 범죄수익을 번연히 알면서도 ‘조력자’ 역할을 자처했다. 이들은 현지 금은방을 찾아 황금을 선택한 후

금은방의 은행계좌로 전자 사기범죄 자금을 송금해 황금을 구매하도록 조직 웃선을 도왔다.

그후 림모갑 등 일당은 취득한 황금을 팔아 현금화했고 불법가상화폐 플랫폼을 통해 조직 웃선에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폐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범죄수익의 3%를 보수로 받았을뿐더러 황금 그램당 50원씩을 추가 비용으로 받았다. 총거래금액 78만 9,682원중에서 45만 2,612원이 사기자금으로 확인되었다. 림모갑과 림모을은 상술한

모든 범죄에 참여했고 강모는 19만 4,838원 상당의 범죄에 참여했다. 황금 구매를 도운 혐의를 받은 또 다른 피고인 왕모는 25만 7,774원 상당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 법원은 심리를 거쳐 림모갑과 림모을에게 유기징역 2년형과 벌금 2만원의 처벌을 선고하고 강모에게는 유기징역 1년형과 벌금 1만원의 처벌을 선고했으며 왕모에게는 유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과 벌금 1만원을 선고했다.

룡정시법원 법관은 최근 몇년 동안

범죄를 은폐하고 사이버범죄 활동을 돕는 범죄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범죄용의자 대다수가 젊은이들이라고 밝혔다. 일부 젊은이들은 법률 의식이 부족하다 보니 범죄 웃선의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다가 결국 범죄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이에 법원은 작은 리의를 탐내 자신의 은행 카드번호나 비밀번호 등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오건기자

